

	<b>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</b> <b>해외동향보고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걸 기 소 장
		일 시	2024. 8.

## CEPA Insight

- 베트남, 2030년 1인당 GDP 7,500달러 목표...산업개발 주력
- 베트남 전자상거래, 동남아서 성장세 가장 빨라...작년 52.9% ↑
- 베트남, 제조업 회복세...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비 11.2% ↑

### ■ 베트남, 2030년 1인당 GDP 7,500달러 목표...산업개발 주력

- 베트남이 2030년까지 1인당 GDP 7,500달러를 목표로 경제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.
- 베트남 제13기 당중앙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결의안 29호' (2045년 목표, 2030년 산업 촉진 및 국가 현대화)에 따른 실천계획을 22일 발표했다.
- 통계총국(GSO)에 따르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인당 GDP는 1억190만동(4,284.5달러)으로 전년대비 160달러 늘어났다. 이를 감안하면 2030년 1인당 GDP 목표는 2023년보다 75% 높은 수준이다.
- 한편, 세계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S&P글로벌레이팅스 (S&P Global Ratings), 그리고 국제통화기금(IMF)는 올해 베트남의 1인당 GDP 전망치로 각각 4500달러, 4620달러를 제시했다. 지난 2000년(498.6달러)과 비교하면 9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.
- 실천계획에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 연평균 7%라는 목표도 담겼다. 목표대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동남아 3강의 한 축을 담당하게된다.

-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전체 경제구조 가운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. 이중 가공·제조업은 전체 GDP의 약 30%를 담당,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2,000여달러에 이를 전망이다.
- 서비스는 GDP의 50%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관광업의 비중만 14~1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-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▲기반산업 ▲우선순위 산업 ▲첨단산업 부문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산업클러스터를 개발, 완전한 제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206>

## ■ 베트남 전자상거래, 동남아서 성장세 가장 빨라...작년 52.9% ↑

-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이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아시아 정부기관의 ICT관련 정보제공플랫폼인 오픈고브아시아(OpenGov Asia)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 상위 8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총거래액(GMV)은 1146억달러로 전년대비 15% 증가했다.
- 거시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전자상거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GMV는 2020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- 한편, 같은 기간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의 GMV는 전년대비 52.9% 증가해 태국(34.1%)과 함께 동남아 전자상거래시장 발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.
-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은 지난 4년간 연간 16~30%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.

- 동남아시아 플랫폼별 매출 규모는 쇼피(Shopee)가 551억달러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48%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, 뒤이어 틱톡숍(Tiktok Shop)이 2위로 급부상했다.
- 틱톡숍은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토코피디아(Tokopedia) 인수이후 동남아시아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. 틱톡숍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시장점유율 24%를 차지하며 쇼피에 이은 두번째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.
- 이밖에도 보고서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키오피니언리더(Key Opinion Leader-KOL, 인플루언서)가 베트남과 태국,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 성장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풀이했다.
- 한편, 베트남정부도 전자상거래시장의 인상적인 성장세에 주목하며,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.
- 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된 베트남 기업의 제품수는 300% 증가했으며, 이에따라 수많은 중소기업이 연간 100만달러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.
- 2022~2025년 기간 베트남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일반 전자상거래시장에 비해 2.3배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26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20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182>

## ■ 베트남, 제조업 회복세...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기비 11.2% ↑

- 7월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(IIP)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.
- 통계총국(GSO)에 따르면 7월 IIP는 전월대비 0.7%, 전년동기대비 11.2% 증가하며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어갔다.
- 같은 기간 업종별 IIP 증가율은 가공·제조업이 13.3%로 가장 높았고, 뒤이어 상하수·폐기물업 12.1%, 발전·송배전업 9.9% 등이었다. 반면 광업은 7% 감소했다.
- 이로써 올해 1~7월 IIP는 전년동기대비 8.5% 증가했다. 전년동기 역성장(1.2%)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적인 회복세다.
- 구체적으로 7월까지 부문별 IIP는 가공·제조업이 9.5% 증가해 전체의 8.2%p를 끌어올렸고, 발전·송배전업이 12.4% 증가해 1.1%p를 기여했다. 상하수·폐기물업은 7.2% 증가했고, 광업은 6.2% 감소했다.
- 같은 기간 업종별로는 고무·플라스틱업이 28.7% 증가했고 가구업과 화학제품업이 21.5%, 17.3% 증가했다. 뒤이어 광업과 조립식 금속제품(기계·장비 제외)이 15%, 13% 증가했다.
- 반면 원유 및 가스업, 기계·장비 설치 및 수리업은 각각 12.4%, 2.9% 감소했고, 비금속 광물제품업, 무연탄·갈탄 채굴업이 1.8%, 1.3% 감소했다.
- 지역별 IIP는 전국 63개 성·시 가운데 꽝응아이성(Quang Ngai, -4.3%), 하띤성(Ha Tinh, -2.1%), 지아라이성(Gia Lai, -1.9%) 등 3개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율을 기록했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283>